

4월 28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거절하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렘 45:5).

: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비밀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자기 생명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한다”는 말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축복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삶 속에서 위대한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더 이상의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연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한다면 주께서 당장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사람이 삶에 싫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을 노략물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당신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는 불순종 때문이거나 당신이 단순해지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거절하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렘 45:5)

완전한 포기의 자리에서 얻는 생명

어제와 동일한 본문, 같은 주제로 오늘 묵상이 연속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용하고 있는 본문 말씀 중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라질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인생의 자랑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 듣거라. 고양이와 쥐뿔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뿔은 언제나 쥐뿔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썸이냐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뿔썸이냐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뿔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악이다. 쥐악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꼬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악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악은 쥐악이다. 이 바보들아.”

우리가 외양에 신경 쓰거나 하찮은 것에 이끌리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들입니다. 챔버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질문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내려놓음’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지며, 전적인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확실히 신뢰하니 말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하찮음’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미세한 틈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식량을 뺏기 위해 말을 타고 공격하는 북방 유목 민족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이죠. 무려 7,000km가 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높이가 9m, 폭이 5m나 되니 방어하는 군사들까지 더해지면 거의 침입이 불가능하고 봐도 무방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도 중국이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죠. 만리장성을 뚫지 않고도 당당하게 문을 지나 약탈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아도 하찮은 뇌물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서 기념품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서 언제 장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완전한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인생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삶은 지루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단순한 인생은 ‘참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묵상 질문 당신의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레시피 ■ 역대상 21:1-17 + 예레미야 45:5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 기록들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

다윗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5절)

성경과 주변 인물들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 3, 6절)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셨으며, 어떤 선택지를 주셨습니까? (7, 12절)

다윗은 선택지를 살피며 다시금 누구의 손에 붙들리길 간구합니까? (13절)

이 일로 이스라엘은 어떤 재앙을 겪게 됩니까? (14절)

엄청난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칼을 뺄 만한 자가(5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국가 차원의 인구조사는 보통 세금부과와 군대 징집을 목적으로 한다. 다윗의 경우는 후자였다(5절). 왕으로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꼭 악한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악하다고 여기신 것으로 보아(7절) 그 동기가 온전치 않았을 것이다. 병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 증강하려던 의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인 양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적군의 칼, 여호와의 칼(12절), 여호와의 천사의 칼(16절)

다윗은 전쟁의 지휘관 되시는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 최선의 무기인 ‘여호와의 칼’을 버리고 ‘자기의 칼’을 준비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우연이거나 다윗의 공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이신다.